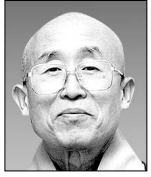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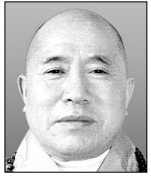


일주문



동국역경원 개원 40돌 기념법회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7월 2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국역경원 개원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3893



육군 제2훈련소 수계법회 봉행 (사)군불교진흥회 이사장 정각 스님(법륜종 종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 육군 제2훈련소에서 3000여 군장병에게 계를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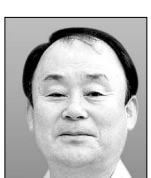
제주 법주사 구하루 상량식 제주도 서귀포시 법화사 주지 시용 스님은 6월 24일 구하루 상량식과 돌사람 제막식을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민추본 4주년 통일포럼 개최 민중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학답 스님은 7월 12일 서울 안국동 철학대당 느티나무에서 '민추본 창립 4주년 기념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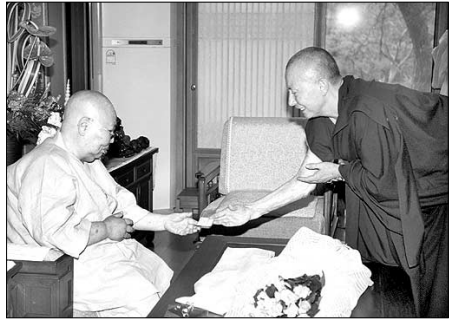


종교신문 편집인에 취임 종교신문 김주호 논설위원(前 편집국장)은 7월 1일자로 종교신문사 편집인에 취임해 신문을 총괄경영을 맡게 됐다.



김천 늘푸른 아간학교 졸업식 김천 늘푸른 아간학교 이양길(직지사 연수원장) 운영이사는 7월 1일 김천 파크호텔에서 늘푸른 아간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 비구니스님들 수행에 존경심”



한미음선원장 대행 스님(왼쪽)이 쏘모 스님의 예방을 받고 있다.

쏘모 스님 한미음선원 대행 스님 예방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카르마 래쉬 쏘모(Karma Leche Tsomo) 스님이 7월 6일 안양 한미음선원을 방문, 원장 대행 스님을 예방했다.

쏘모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기간 중 대행 스님과 관련한 논문 2편을 읽다가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방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을 높이 평가하며,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다음대회에 대행 스님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할 것”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 의원



“언론개혁이나 문화정책의 진흥이라는 중대과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미경 의원(54·사진,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 전반기 문공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장직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계종과 문화관광부 협의를 거쳐 법제처의 심의와 국회 상정 및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지을 스님이 천성산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정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

며 “상황 파악 후 문공위 위원들과 깊이 상의해 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여성 3선 의원인 이 의원은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여성신장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한국불교는 민족의 고난사와 함께 했던 민족적 종교입니다. 민주화, 국민통합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항상 앞장서 온 것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이 의원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을 항상 새기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19회 불이상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7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9회 불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연구 분야 수상자 김성철 교수(동국대), 실천분야 장지현 씨(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와, 불이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제대왕 정림사 행차’ 재현



백제의 왕이 부여 정림사에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한 ‘백제대왕 행차’ 행사가 7월 3일 부여 정림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림사 안내와 의식 집전 등 대각종 총무원장 만창 스님(부여미암사 주지)이 맡아 진행됐다.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수계법회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학장 현호)은 7월 7일 대학 법당에서 기초반, 경전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계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120여 명이 동참했다.

세계평화와 호국선열 추모법회



한국불교관음조계종(종정 백송)은 7월 3일 세계평화와 호국선열 추모법회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봉행했다. 종정 백송스님 총무원장 무송스님, 중앙총회의장 대광스님, 사무총장 응제법사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열린 다선방·불교대 개원

안성 백마사... ‘반야심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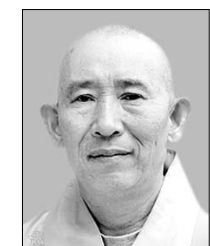
“불자들이 늘 독송하는 반야심경에는 불법의 요체가 담겨 있지만 그 뜻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체득하면 행복한 길이 열리지요. 함께 반야심경을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7월 3일 열린다선방 불교대학을 개원한 ‘황토로 지은 법당’ 안성 백마사 주지 법성 스님(사진). ‘반야심경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불

교대학에서 열린 첫 강의에서 <반야심경>을 설교했다.

요즘 안성지역에서 재밌는 강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법성 스님은 9월 11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3개월 과정으로 <반야심경>을 비롯해 108 참회선법, 통성예불의식, 요가 등의 특강을 열 계획이다.

한편 법성 스님은 매주 주말 수련회를 열고 있다. (031)674-7188 박병영 기자



연등축제 우수단체 시상

최우수상 한미음선원, 우수상 천대중·능인선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연등축제 최우수상을 받은 한미음선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기 2548년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한미음선원이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상인 연등상은 능인선원과 천대중이 받았다. 올해 최초로 거리행사와 제등행렬에 참가한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는 원력상을 수상했다.

“준비·참여·수상 모두 감사합니다”

원력상 수상 합두루 스님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



“한국의 연등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해 많이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파주 보광사 주지 일문 스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불기 2548년 연등축제 시상식에서 스리랑카 불자문화공동체를 대표해 원력상(행사 참여 부문)을 받은 외치 짜라 합두루 스님(사진). 봉축위원회는 “불교문화마당에 적극 참여하고 제등행렬에서

스리랑카 장엄등과 개인등을 준비, 정성을 다해 참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등축제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수상의 의미가 크다”는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를 알릴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남동우 기자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파라마타·조명철 씨 수상



파라마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사진 왼쪽)가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주)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보호대상’ 단체부문에 수상했다.

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장 조명철(사진 오른쪽) 씨도 개인부문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상식은 7월 2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hpck@buddhapia.com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대)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